

# 충남도립대 건축인테리어학과, "봄꽃으로 피어난 따뜻한 손길"

✎ 박의규 기자 | ⓒ 승인 2025.05.14 21:38

로템의 집 외벽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공간 넘어 마음을 잇다'



벽화 봉사활동/충남도립대학 제공

(충남=국제뉴스) 박의규 기자 = 충남도립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 학생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색을 더했다.

충남도립대 건축인테리어학과 학생들은 청양군 비봉면에 위치한 요양시설 '로템의 집'을 찾아 벽면을 아름다운 봄꽃으로 채우는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단순히 낡은 벽면을 새롭게 단장하는 것을 넘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생기를 전하자는 마음에서 출발했다.

건축인테리어학과 이승일 지도교수는 '내 지역은 내가 만든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수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벽화봉사를 이끌어오고 있으며, 이번 활동 역시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회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학생들은 직접 기획한 도안을 바탕으로 시설 외벽에 햇살 가득한 꽃들과 싱그러운 자연의 이미지를 한 땀 한 땀 그려 넣었다.

벽화 작업에는 컴퓨터공학과 학생들과 이해인 교수도 함께하며, 전공을 뛰어넘은 협력과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단순한 미술 활동을 넘어, 지역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다.

충남도립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씩 청양 지역 내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벽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 보건소 등 지역 공공기관의 요청을 통해 장소를 정하고, 학생들은 설계부터 페인트칠,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손수 수행하며 실무경험은 물론 공동체 의식도 함께 키워가고 있다.

학생들은 "우리가 배우고 익힌 전공을 지역을 위해 쓸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낀다"며 "작은 변화이지만, 이 공간을 이용하는 분들이 하루하루를 조금 더 기분 좋게 보내실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승일 교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을 돌보고 아름답게 가꾸는 모습이 대학이 지역과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공 간 협력을 통해 더 많은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



**박익규 기자** diva526@nate.com